전남 학교들 교명 바꿔 이미지 변신중

실고·종합고→하이텍고 등 시대흐름 반영 4년간 13곳
전남제일고→목상고 등 전성기때 회귀도…긍정변화 기대

전남지역 초·중·고교의 교명 변경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들 학교는 교명 변경을 통해 기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이미지를 브랜드화하는 등 도약의 계기로 삼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학생 없이는 학교도 존재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이 반영된, 이른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4년여 간 교명을 바꾼 도내 초·중·고교는 13개교다. 연도별로는 ▲2014년 6개교 ▲2015년 4개교 ▲올해 3개교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명을 변경한 학교 중 상당수가 기존에 사용하던 '실고', '종합고'라는 이름을 없애고 시대 흐름을 반영한 교명을 썼다는 점이다.

장흥실고와 광양실고는 '특화 고교'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정남진산업고와 광양하이텍고로 교명을 바꿨다. 장성실고도 장성하이텍고로 교명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교명 변경과 관련, "실업계 고교에 대한 편견과 대입위주 교육으로 신입생 모집난이 심화하면서 자구책 일환으로 교명변경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부 학교는 '전성기 시절' 교명으로 회귀했다. 병영정보과학고는 전통상업계고의 회귀를 통한 학교 이미지 브랜드화를 위해 병영상고로 변경했다. 전남제일고는 옛 목포상고와 연계성을 살리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목상고로 이름을 바꿨다.

교명에 지역 이름과 방위 개념을 합한 일제시대 행정편의주의적 작명법에 따라 지은 교명을 바꾼 학교도 있다. 장성북중이 대표적으로, 지난 2015년 장성백암중으로 변경했다.

거점특성화고 추진과 학과개편, 일반계고교 전환계획, 학교 통합, 관리학교 변경 등에 따라 교명을 바꾼 학교도 많다. 송지종합고→송지고, 영광실고→영광공고, 초도초교손죽분교장→거문초교손죽분교장 등이다. 올해 학다리고는 거점고 추진에 따라 함평학다리고로 교명 변경을 신청했다.

이름을 바꾼 학교는 이미지 전환은 물론 학생과 학교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의 경우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있다"며 "교명 변경을 통해 학교 이미지도 바꾸고 학생들에게도 오히려 신선함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명 변경은 광역 시·도교육청의 교명선정위원회 심의와 시·도의회 조례 개정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이 모든 절차가 잘 마무리되면 다음년도 3월 새 학기부터는 바뀐 교명을 사용할 수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간호사로서 사명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158명이 2일 학교 본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23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생명사랑과 봉사정신을 본받아 간호사로서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오늘의 날씨

해뜸 06:55 / 해짐 17:36 / 달뜸 17:18 / 달짐 05:23

주말 깜짝 추위

오후부터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가끔흐리고 비	10/18	보 성	구름많음	6/18
목 포	가끔흐리고 비	11/18	순 천	구름많음	10/20
여 수	구름많음	12/20	영 광	가끔흐리고 비	8/18
나 주	가끔흐리고 비	17/18	진 도	가끔흐리고 비	8/17
완 도	구름많음	12/19	전 주	가끔흐리고 비	10/18
구 례	가끔흐리고 비	8/17	군 산	가끔흐리고 비	9/16
강 진	가끔흐리고 비	7/20	남 원	가끔흐리고 비	8/17
해 남	가끔흐리고 비	7/19	흑산도	가끔흐리고 비	13/18
장 성	가끔흐리고 비	7/16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	북서~북	1.0~3.0
	먼바다	남서~서	0.5~2.0	북서~북	2.0~4.0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	북서~북	0.5~2.0
	먼바다(동)	북서~북	0.5~1.0	북서~북	1.5~3.0
	먼바다(서)	북서~북	1.0~2.0	북서~북	2.0~4.0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6:29	00:59
	18:53	13:48
여수	01:59	08:18
	14:16	20:24

◇ 생활지수

산불위험	낮음
자외선	낮음
미세먼지	한때나쁨

◇ 주간 날씨

4(토)	5(일)	6(월)	7(화)	8(수)	9(목)	10(금)
6/15	3/17	4/18	8/21	10/17	4/17	6/17

국립공원 파편화, 야생동물 서식지 위협

무등산, 도로·탐방로 182조각
전국 16곳 2124개 구역 나눠

무등산, 월출산 등 국립공원이 도로와 탐방로 등으로 잘개 쪼개지면서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는 연구 분석이 나왔다. 녹색연합이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악형 국립공원 16곳은 도로와 탐방로 등이 설치되면서 모두 2124개 구역으로 나뉘어있다. 도로와 탐방로는 총 2327.46㎞다.

면적 대비 파편화(나뉜 구역 갯수)를 살펴봤을 때 무등산국립공원은 75.4㎢ 면적에 불과하지만 사방으로 관통하는 도로와 탐방로로 인해 182개 조각으로 나뉘었다. 182개 중 181개는 5㎢ 이하였고 나머지 1개는 10㎢이하였다.

월출산국립공원은 전체 56.2㎢가 29개로 나뉘었으며 5㎢ 이하가 26개, 5~10㎢가 1개, 10~20㎢가 1개, 30~40㎢가 1개로 나타나 무등산보다는 양호했다.

전국에서 면적대비 가장 파편화가 심하게 진행된 곳은 북한산국립공원이다. 북한산국립공원은 면적 76.9㎢가 275개 조각으로 쪼개져 있으며 274개가 5㎢ 이하, 1개가 10~20㎢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출근시간대 주1회 불시단속

올 음주 교통 사망사고 증가…광주경찰 오늘부터 단속 강화

광주경찰이 출근시간대 숙취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음주운전은 사회적 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는데도, 숙취 등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망사고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월 1일부터 10월 31일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와 부상은 각각 10.7%(635건→567건), 17.9%(1266명→1039명) 감소했지만, 사망은 12.5%(8명→9명) 증가했다.

특히 숙취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교통사고율을 높이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광주경찰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달 16일 오전 6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숙취 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62%)을 하던 김모(28)씨가 택시운전기사(73)를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음주운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일제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광주경찰은 3일부터 지역경찰 및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대거 투입해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출근시간대 숙취 음주단속을 한다.

경찰은 또 주요 교통축을 중심으로 관서별 '축선상 릴레이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시간 교차 및 단속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스팟 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은 이와 함께 오는 6일부터는 주 1회 불시단속을 추가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음주운전 및 법규위반 근절을 목표로 주간 시간대 단속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밖에도 매일 야간·심야시간대 경찰서별로 음주운전이 잦은 식당가·유흥가 인근 도로에서 수시로 음주 단속을 하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

광주 공무원 3년간 40명 징계

최근 3년간 40명이 넘은 광주시 공무원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시감사위원회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현황은 2015년 19명, 지난해 13명, 올해 들어 9월까지 11명이 파면·정직 등 각종 징계를 받았다. 매년 1명씩, 3명이 파면됐으며 해임 2명, 정직 4명, 감봉 9명, 견책 13명, 불문경고 12명이다. 징계 사유로 교통사고 22명, 품위손상 5명, 청렴의무 위반 5명, 업무소홀 3명 등이다.

37명이 경찰·검찰 등 사법기관을 통해 적발됐으며 자체감사는 5명, 중앙부처 감사는 1건에 불과했다. /오광록기자 kroh@

공부 잘하려 먹는 ADHD 약 부작용 심각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정상인 복용시 두통·불안감…심하면 환각·망상·자살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수능철을 맞아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오남용에 대해 경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일부 수험생들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ADHD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DHD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만성질환으로 주의력부족, 과잉행동, 충동적 행동 등이 주요 증상이다. 소아와 청소년에게 주로 나타난다.

정상인이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등을 잘못 복용하면 두통, 불안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환각, 망상 등에 시달려 자살까지 시도할 수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